

순천 선암사·갯벌 담아낼 '세계유산축전' 준비 착착

내달 12일부터 22일간 열려
AR·VR 등 실감형 콘텐츠 집중
안풍습지 백패킹 장소 특별 개방



순천만습지. <순천시 제공>

'2025 세계유산축전'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20일 순천시에 따르면 다음 달 12일부터 10월3일까지 열리는 '2025 세계유산축전-선암사, 순천갯벌'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가치와 매력을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낸다.

특히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선암사와 살아 숨쉬는 순천갯벌을 배경으로 공연, 전시, 투어, 체험 등 감성 가득한 축제를 펼친다.

고즈넉한 산사와 드넓은 습지 위에서 전통문화와 첨단기술이 어우러지고, 사람과 자연이 하나로 연결되는 이번 축제는 세계유산의 가치를

단순히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관람객이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형 축제로 준비되고 있다.

특히 AR·VR 등 실감형 콘텐츠를 통해 관람

객이 유산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는 경험을 제공하며, 세대와 국적을 넘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참여형 문화축제로 기획됐다.

'생명의 유산, 정원의 무대'를 주제로 다음 달 12일 그린아일랜드에서 축전 개막식을 선보인다. 선암사와 순천갯벌이 지닌 고유의 생명력을 빛과 소리,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무대로 형상화한다.

판소리와 대금합주, 전통무용, 합창, 드론쇼까지 이어지는 장엄한 연출을 통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며 만들어 온 순천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릴 예정이다.

또 관람객은 선암사 일주문에서 시작해 대웅전, 불조전, 응향각, 설선당으로 이어지는 여정을 따라가며 각 구간에서 AR·VR영상을 차례로 만난다.

순천만습지 무진교 일원에서는 AR영상을 통해 세계적 갯벌의 변화와 생명 활동을 감상할 수 있다. 봄의 갯벌 속 새새, 여름의 풍요로운 생명, 가을의 황금빛 빛깔, 겨울의 고요함이 AR영상 및 퍼펙트 공연, 음악극과 결합해 관람객을 매료시킨다.

순천만에서도 평소에는 백패킹이 허용되지 않는 안풍습지가 축전 기간 동안에만 특별히 백패킹 장소로 개방된다.

고즈넉한 갈대숲과 바람결에 일렁이는 습지를 배경으로 진행되는 '갈대 백패킹'은 다음 달 13-14일, 20-21일, 27-28일 총 3회에 걸쳐 회당 40명씩만 참여할 수 있다.

템플스테이 '산사에서 하룻밤 산사에서 나를 찾다'는 국가유산진흥원의 국가유산 방문캠페인과 협업으로 마련된 한정 프로그램이다. 축전 기간 동안만 진행되며, 참가자는 고즈넉한 산사에서의 1박2일 동안 참선, 발우공양, 전통 예불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세계유산의 가치를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이므로 이번 축전이 세대와 문화, 지역과 세계를 잇는 소통의 장이자 유산의 현재를 누리고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정기기자



여수시가 지난 18일 보건소 회의실에서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회 의장단을 초청해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여수시 제공>

여수시, 정치권에 1천800억 국·도비 건의

국회의원 비릇 시·도의원 초청 간담회
석유화학 위기·섬박람회 지원 등 요청

여수시가 지역 정치권과 함께 주요 현안 해결과 국·도비 확보 방안을 위해 마리를 맞았다.

20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보건소 회의실에서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회 의장단을 초청해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자리로, 최근 국정과제와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시 주요 현안 대응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열렸다.

간담회에는 정기명 여수시장과 시 간부 공무

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여수갑)·조계원(여수을) 국회의원, 백인숙 시의회 의장, 이광일 전남도의회 부의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정 시장은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 여수공항 국제공항 승격, 여수-순천 고속도로 건설 등 16개 현안사업과 1천800억원 규모의 국·도비 건의사업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예산 소진으로 중단 위기에 놓였던 '여수-거문항로 타 지역민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선사 협의와 예산 조정을 통해 연말까지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로 했다.

정기명 시장은 "석유화학산업 위기 극복

을 위한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책과 국회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2026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와 함께 여수가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주철현 의원은 "새 정부 임기 동안 여수의 미래 비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광객 감소 등 현안 해결과 관광 콘텐츠 개발에 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원 의원은 "여수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K-컬처 정책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며 "2만석 규모의 K-POP 전용 아레나 시설과 국립현대미술관 해양 분관 유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여수=김진선기자



광양시, 중국 우호도시와 교류 협력 강화

선양시·잉커우시 실무 대표단 파견
문화·이차전지·항만 등 협력 모색

광양시가 중국 라오닝성 우호도시인 선양시와 잉커우시와 청소년·문화·산업 분야 전반의 교류 활성화를 모색했다.

20일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 11-18일까지 실무급 대표단을 파견해 양 도시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사진>

선양시 방문은 10개국 300여명, 5천여명이 참가한 '제11회 피스킵 국제 청소년 축구대회' 참가와 연계해 추진됐다. 대회에 참가한 광양시 청소년 축구 대표단(광양제철고등학교 축구

부)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최종 우승을 차지하며 국제 무대에서 기량을 입증했다.

광양시 실무급 대표단은 대회 기간 중 선양시 외사관공실 귀홍연 부주임을 접견하고, 선양 중한산업단지 및 자유무역구를 시찰했다. 이를 통해 양 도시간 청소년·문화 교류뿐 아니라 물류·유통, 관광 분야의 협력 가능성도 넓혔다.

이어 대표단은 우호협약 체결 20주년을 기념해 잉커우시를 방문했다.

왕디엔펑 부시장을 접견한 후에는 푸야오 라이브커머스 창업센터, 잉커우항, 자유무역단지를 차례로 시찰하며 이차전지 소재, 항만·물류, 전자상거래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광양=양홍렬기자

고흥 블루마린 자전거 여행 조기 마감 400명 참가...녹동·거금권역 순환 코스

고흥군은 "다음 달 13-14일 1박2일 일정으로 열리는 '2025 고흥 블루마린 자전거 여행' 참가 신청이 조기 마감됐다"고 20일 밝혔다.

참가자 모집은 당초 이달 2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접수 시작 열흘 만인 지난 14일 정원 400명이 모두 채워지며 조기 마감됐다.

행사는 고흥의 청정해 바다와 섬을 배경으로 녹동·거금권역을 잇는 해안 경관을 따라 달리는 약 60km 순환 코스로 구성됐다. 코스는 마리안느-마가렛 나눔연수원에서 출발해 소록대교와 거금대교, 거금일주로를 거쳐 다시 연수원으로 돌아오는 구간이다.

특히 지역 특산물·관광지·카페를 연계한 체류형 프로그램으로 기획돼 참가자들이 고흥의 다양한 매력을 체험할 수 있다.

단체 참가자(20인 이상)에게는 관광버스 요금을, 개인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혜택도 제공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짧은 기간 안에 모집이 조기 마감된 것은 고흥의 해안 경관과 관광 콘텐츠 경쟁력을 보여주는 성과"라며 "참가자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여행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진기자

'더위 날려줄' 구례 오맥축제 23일 열린다

얼음 컬링 썰린지·물총놀이 등 다채

오는 23일 구례읍 5일시장 일원에서 '2025 구례 5일시장 제8회 오맥축제'가 열린다.

20일 구례군에 따르면 오맥축제는 구례읍 중심지가 지향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여름철 전통시장의 방문객 감소와 매출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 침체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23년 처음 시작했다.

'얼음 속으로 풍덩! 시원하게 즐기자'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축제는 시원한 얼음과 물풍선 릴레이·슬러시·생맥주 등 더위를 날려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행사는 오후 3시부터 얼음 컬링 썰린지, 인생네컷, 빵아빵야 물총놀이, 수박 빨리 먹기 예선, 스탬프투어 등 체험 프로그램으로 문을 연다. 오후 5시부터는 버스킹 공연, 게릴라 이벤트, 수박 빨리 먹기 결승, 청년점포 운영, 플라마켓 등이 이어진다.

축제 현장에는 생맥주 400ℓ(500cc 기준 800잔

분량)가 준비되며, 맥주 교환권을 구입해 1인당 최대 4잔까지 즐길 수 있다.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해 슬러시는 1잔당 500원에 제공한다.

청년점포와 플라마켓에서는 맥주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먹거리와 공예품이 판매되며,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례군과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행사 전·중·후 안전관리, 전기·의료·우천 대비 대책을 수립해 방문객들이 안심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

구례 5일시장 상인회장은 "오맥축제는 상인과 주민, 관람객이 함께 웃는 자리"라며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제8회 오맥축제가 군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사랑받는 여름밤 명품 축제로 발전하길 기대한다"며 "지속가능한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구례=임종길기자



보성군 저장 강박 의심가구 발굴·지원

민관 협력 업무협약

보성군은 20일 "전남 저장 강박 의심 가구 등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고독사 예방을 위해 민관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보성건설기계협회, ㈜한양자원개발, 동남환경건설이 참여했다.

협약은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고립, 저장 강박 등 위기가구 문제를 민관이 함께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진>

협약에 따라 보성군은 고독사 예방과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맡고, 보성건설기계협회는 건설기계를 활용해 주거공간의 폐기물을 처리한다.

(주)한양자원개발과 동남환경건설은 건설 폐기물 운반·처리를 전담한다. 이를 통해 위기가구 발굴부터 폐기물 처리까지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임승호 보성건설기계협회장 겸 이사장은 "적체된 폐기물 처리뿐 아니라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에도 적극 협력해 지역사회의 안전망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이번 협약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인 변화를 이끌어 지역사회가 더욱 안전하고 따뜻한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생활밀착형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해 모두가 행복한 보성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보성=임병연기자

장성사랑상품권 모바일 결제 가맹점 모집

29일까지 방문·전화 접수

장성군은 20일 "오는 29일까지 '장성사랑상품권 모바일 결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맹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비스가 도입되면 가맹점 이용 시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을 이용해 간편하게 지역상품권을 쓸 수 있다. 소비자 편의 증진은 물론 가

맹점 카드 수수료도 발생하지 않아 고른 호응이 예상된다.

신청은 이달 29일까지 사업장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장성군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 개통 시기는 10월 무렵으로 추석 전에 개통하는 것이 목표다. /장성=김태기자